고용노동부 | 보도참고자료 | 대체불가 대한민국

보도시점 2026. 11. 20.(금) 배포 즉시

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

- 양극화 대응 TF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」1차 회의 개최 -

- 노동부 차관, 매주 회의 통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개선 방안 논의 예정

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(금)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*가 참석한 가운데 **「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」 제1차 회의를 개최**하였다.

* 재정경제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교육부, 산업통상부, 보건복지부, 중소벤처기업부, 기획예산처, 공정거래위원회, 한국노동연구원, 한국직업능력연구원, 산업연구원,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

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(수) 출범한 **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**로, **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·논의**한다.

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·경제적 요인으로 **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**되는 상황이다. 노동시장에서도 **기업 규모, 고용형태** 등에 따라 **임금·복지·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**가 있으며, **AX 확산 등의 영향**으로 **일할 기회**와 **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**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.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**고용·노동정책 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·거래관행 등**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,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.

이날 회의에서는 **①노동조건, ②일할 기회, ③안전망, ④산업구조·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**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,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. 특히, **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**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.

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·구체화하고,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.

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"'**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**'을 위해서는 **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**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,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"라며, "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, **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**하고, **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**에서 **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**하기 위해 관계부처,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"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	책임자	과 장	김태연 (044-202-7026)
		담당자	사무관	김 원 (044-202-7028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
대체불가 대한민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